

	<h1>보도 반박</h1>				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'21.9.8.(수)	
책 임 자	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이 동 훈(02-2100-2830)	담 당 자	김 경 문 사무관 (02-2100-2824) 김 나 혜 사무관 (02-2100-2836)		

제 목 :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현재 확정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.

1. 기사 내용

- 헤럴드 경제(이승환 기자)는 9.8일자 “‘실수요 대출’까지 규제 카드 꺼내는 정부” 제하의 기사에서
 - “금융당국이 무주택자 전세대출에 이어 집단·정책모기지까지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”고 보도하였습니다.

2.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

- 금융당국은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면밀히 동향을 점검·관리하고 있습니다.
 - 이 과정에서 전세·주택 등 실수요와 서민·취약계층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은 없는지를 각별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.
- 이와 관련, 일부 언론에서 각종 규제강화 방안들을 보도하고 있으나,
 - 현재 규제강화 여부, 대상 및 범위, 구체적 방안, 추진일정 등은 확정된 것이 전혀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
할 경우 출처를 표기
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